

# 읽고 쓰고 생각하는 독서

—독서새물결운동 원년을 보내며—

## 정원식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장·전 국무총리

지난해 '책의 해'는 예상외로 사회의 큰 호응을 얻어 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하여 독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시도하려는 것이 '독서새물결운동'이다.

지금까지 여러 단체가 독서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으나 다소 산발적인 감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단체의 독서운동을 연합해서 추진하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독서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21세기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모든 국민이 책읽는 국민이 되지 않고서는 다가오는 도전과 시련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 분명 21세기는 창조력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창조력없이 냉엄한 국제경쟁사회에서 생존을 보장받을 수도 없을 것이며, 빠른 속도로 변모하는 새로운 세계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독서새물결운동'은 단순히 책을 읽는 운동이라기보다 책을 읽고 쓰고 생각하는 경험에 의해서 창조적 사고력을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는 운동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독서운동은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단편적인 지식의 주입에만 의존해온 탓에 그들의 사고력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어야 할 독서하는 일을 운동까지 벌이며 강조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까운 일인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책을 가까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운동이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독서습관을 길러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만일 청소년기에 책읽는 습관을 기르지 못하면 후에 그러한 습관을 형성하기 어렵게 된다.

금년은 '독서새물결운동'의 첫해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으나, 그런 중에서도 독서환경조성사업, 청소년독서진흥사업, 책을 통한 한민족동질성회복사업 등 30여 가지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펼친 사업 중에서 평소에 책과 함께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은 '생활속의 독서사진 공모전'은 독서가 취미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임을 보여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한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 '독서대상' 사업을 신설한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지도교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독서지도교사에게 상을 주기로 한 것이다. 교사에게 주는 상 중에는 대통령상이 포함되고, 국무총리상, 교육부장관상, 그리고 각 시도의 교육감상을 주도록 되어 있다. 이 독서대상 제도는 기존의 독후감 공모와는 달리 학생에게도 상을 주지만 지도하는 교사에게 상을 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독서대상 제도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에서부터 독서교육이 정착되고 전 사회로 확산되어 가도록 하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업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독서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적지않게 고무되고 있다.

앞으로도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는 비록 어려운 여건이라 할지라도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독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독서의 생활화를 정착시켜 우리나라가 문화선진국으로 당당히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 기회에 책과 독서문화에 관련된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송년특집 2 **올해 어떤 책이 얼마나 팔렸나**  
국내 창작소설 상한가... 광고공세로 독서풍토 편향 부채질
- 4 **풍성한 수확 자랑하는 단행본 출판사들**  
연간 50종이상 10여곳... 비상업성 원고 몰려 학술서 두각
- 6 **“책쓰기와 책읽기는 둘이 아니다”**  
꾸준한 연구와 창작활동 보인 올해의 多産家들
- 8 **책이 좋아 책방에 사는 단골 손님들**  
책구입에 월20~30만원 투자... 밥끓어도 책읽는 '독서광'
- 10 **일간지 출판기자단이 뽑은 1994년의 출판계 10대 토픽**

- 서평 14 **송호근 「열린시장, 닫힌정치」** - 유홍준  
변형윤 외 「분배의 정의」 - 김형철
- 15 **브루노 스넬 「정신의 발견」** - 기중석
- 16 **이필영 「마을신앙의 사회사」** - 주강현  
막스 빌 「예술과 느낌」 - 진교훈
- 17 **워렌 로버트슨 「당신의 인생을 연기하라」** - 김윤철

- 확대서평 18 **조선후기 민중동향의 역동성 부각** - 배병삼

- 열굴 20 **94년 보내며 증보·개정판 낸 두 원로 출판인**  
일조각 한만년 사장, 일지사 김성재 사장
- 21 **고희 맞은 원로 사학자 이기백 교수**

- 초점 22 **기독교출판계 올해도 '카타콤' 신세**  
불황터널 길지만 '부활' 위한 몸부림 돋보

- 송년예세이 24 **“새해가 연달아 온들 무엇이 두려울까”**  
— 김진섭의 「제야의 변」

- 이책 그사람 26 「등산일기」 낸 손경석씨  
「재즈 속으로」 펴낸 이종학 씨
- 27 「깨지지 않는 계란」 펴낸 박대일씨  
「우리말 상소리 사진」 펴낸 정태룡씨
- 28 **신간안내**
- 38 **어린이책 들춰보기**
- 40 **새로나온 책**
- 48 **재미있는 책이야기**

표지사진/ 김홍진

### 알림

### 본지 12월20일자 정기 휴간

「출판저널」은 연말연시의 정례휴가에 따라 예년과 같이 12월20일자를 휴간하고, 다음호(161호)는 1995년 1월5일자 신년호로 발행되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